

교환학생 귀국보고서

파견학기	2026 년 1 학기	파견국가	미국
파견대학	University of Pennsylvania		
이 름	김민준		
소 속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본인은 서울대학교 국제처 주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국제처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학생 안내, 프로그램 홍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출 일	2026 년 7 월 16 일
작 성 자	김민준 김민준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저는 학사 졸업 후 대학원 유학 및 해외 취업에 대한 꿈이 있었으나 어릴 적 유학을 경험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유학 준비를 하기 전 유학 생활을 체험해보면서 타지 생활이 저에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교환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 문화체험 및 관광을 좋아하는 편이라 공부도 하면서 오랫동안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꼭 활용하고 싶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와 파견대학/지역의 특징

일단 나라는 영어권을 희망했습니다. 나중에 유학을 가게 된다면 영어권으로 가야 생활과 학습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후보가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으로 좁혀졌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은 제국되는 미국이 제일 유학가기 제일 좋아보였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했고 저는 가능한 가장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지역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국 동부 쪽으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고과정 후 내린 결정은 유펜이었습니다. 여러 유명인들이 졸업한 학교이며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는 학교입니다. 아이비리그중에서도 꽤나 좋은 편에 속하는 학교였습니다. 유펜의 자랑인 경영대학은 와튼스쿨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고 MBA 과정의 평가가 전세계 1 위인 학교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위치해있으며 뉴욕에서 기차로 1 시간거리, 워싱턴에서 2 시간거리인 큰 도시들에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치안은 안 좋기로 유명한 도시라서 밤에는 캠퍼스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비자 신청 비용: \$535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교환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고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대사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작성할 서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서류제출할 때 본인의 sns 를 적는 칸이 있는데 이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sns 를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별로 안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인스타그램 계정 한 개만 적었다가 비자 발급 보류 처리 되고 sns 계정 더 기입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요즘 비자 발급 과정에서 sns 계정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2. 숙소 지원 방법

메일로 기숙사 지망 순위와 룸메이트 성향 선호를 작성하는 폼 링크가 옵니다. 룸메이트 성별 선호, 본인이 원하는 청결도, 수면시간, 친구 초대 빈도, 흡연 여부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크게 고려되어 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같이 교환을 가는 친구나 교환교에 아는 친구가 있다면 같은 방에 배정되는 시스템은 잘 돼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기숙사는 Harnwell 이며 이 이외에 제가 아는 기숙사는 Harrison, Rodin, Gregory, Radian, Stouffer, Du Bois 등이 있습니다. 먼저 돈을 낼 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더 비싼 돈을 내면 본인만의 방과 공유주방이 보장됩니다. 더 싼 옵션은 2 인 1 실에 걸리거나 본인만의 방이 있는데 공유주방이 없는 방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방에 보장되더라도 보통 3 인 3 실 혹은 4 인 4 실에 배정받게 됩니다. Harnwell, Harrison, Rodin 은 비슷하게 디자인된 기숙사입니다. 4 인 4 실 3 인 3 실, 2 인 1 실 1 인 1 실 모든 종류의 방이 있으며, 시설 노후화정도를 따졌을 때 추천 순위는 Rodin>Harrison>Harnwell 입니다. Harnwell 엘리베이터는 매일 고장났던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 개인데 1 개만 운행하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Gregory 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층 기숙사입니다. 4 층이 제일 높은 층이라서 짐 옮길 때 빼고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Gregory 가 주방이 없는 4 인 4 실, 3 인 3 실을 더 낮은 가격의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숙사입니다. Stouffer 도 Gregory 랑 비슷한 느낌입니다(엘리베이터는 있음). Du Bois 는 흑인 커뮤니티가 활성화 돼있는 기숙사라서 주로 흑인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제일 좋은 기숙사는 Radian 입니다. 신식 아파트를 빌려 기숙사로 사용합니다. 다른 기숙사들은 4 인 4 실에 화장실이 1 개거나 2 개있는 반면 Radian 은 최소 2 개고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Radian 이 이제 기숙사가 아니라 다시 아파트가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만약 아니라면 Radian 을 1 지망으로 적는 것을 추천합니다.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student fee, tuition fee, 기숙사 비용 등)

기숙사 비용: \$8613

Dining plan: \$1360

건강보험: \$411

Clinical fee: \$371

기타 비용: \$160

전부 필수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들입니다. 건강보험은 병원을 자주 다니셔야 하는게 아니라면 학교에서 권장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제일 싼 걸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4. 기타 유용한 정보

미국은 물가가 정말 비싸기 때문에 부피가 큰 것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본인이 평소에 챙겨먹는 약은 미국 체류기간 전체동안 먹을 수 있는 용량을 챙겨가길 바랍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유펜 전용 수강신청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수강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학교 인원 자체가 적어서 서울대처럼 한순간에 인원이 다 차고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 헛갈렸는데 장바구니에 담는 것과 실제로 강의 신청하는 건 별개의 과정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저는 경영과목 2 개 수학과목 1 개 인문과목 1 개를 수강했습니다. 미래에 경영복전을 희망하기도 했고 컴공 전공 중에 경영과목이 몇 개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경영과목을 2 개 수강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 수업을 경험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1. Organizational Behavior

배운게 가장 많았던 수업입니다. 수업 이름은 조직행동론이지만 정말 다양한 것을 배웁니다. 본인의 장점 찾기, 집단을 다루는 방법, 논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마지막 프로젝트는 본인의 조가 지정한 회사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본인의 장점을 찾고 팀 활동을 많이 하면서 본인도 몰랐던 본인의 장점을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2. Negotiation

유펜에서 정말 유명한 강의이고 교환학생들 중 다수가 수강합니다. 협상론을 배우는 것에 끝나지 않고 매주 수업 한번은 주어진 가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읽고 그 역할을 담당하여 같은 반 학생들과 조를 맺어 가상의 협상테이블을 경험합니다. 역할과 조는 랜덤으로 배정되며 본인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역할이 배정되어도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경험하지 못할 고액의 협상테이블을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 가치의 저울질을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는 경험해보기 힘들 강의이니 추천합니다.

3. Asian American in Contemporary Society

미국 교포 아시아인들에 대해 다루는 강의입니다. 이 또한 미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의이기에 추천합니다. 교포 아시아인들의 고충과 정체성 혼란 등에 대해 배우며 유펜에는 교포학생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수업에 온 교포학생들의 실제 경험담들을 들으며 한국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경험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4. Linear Algebra

배우는 내용은 한국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큰 차이로는 미국의 수업이 더 참여형, 조 활동이 많습니다.

3. 학습 방법

서울대 수업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로는 과제와 시험의 빈도입니다. 한국 수업들은 헤비한 과제들이 적게 있는 반면에 미국은 간단한 과제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매주 과제가 나오는 수업들도 많습니다. 시험도 3 번이상 보는 과목들이 많습니다. 과제가 빈번하게 있는 만큼 과제를 다 완수하면서 수업 진도를 따라가다 보니 시험공부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4. 외국어 습득 요령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국 가기 전에는 회화에 대한 자신이 없고 영어를 하는게 어색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간 뒤 계속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수업때 발표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서 회화가 정말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간만큼 텍스트 형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이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으니) 계속 스피킹의 영역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평소에 본인이 챙겨먹는 약이랑 상비약을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현지 물가 수준

너무 비쌉니다. Tip 이랑 Tax 때문에 한국 물가의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재료 값은 싼 편이니 간단한 요리(김치볶음밥, 김치찌개) 같은 것들은 배워가서 아침정도는 혼자 요리해 먹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웬만하면 방마다 있으니 컵밥을 자주 먹었던 것 같습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식당

Dining Hall 이 최악은 아니지만 맛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뷔페형식이기에 배를 채우고 다양한 음식을 먹기에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Dining Hall 이 정말 많은데 Top 3 를 매겨보면 Lauder, KCHECH, Kosher 입니다. Commons 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그리고 Dining plan 은 가장 싼 걸로 해서 주로 요리해먹거나 사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Dining Hall 이 퀄리티는 떨어짐에도 가격은 바깥 음식과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Upenn 주변이나 Central city 에 맛있는 음식점들이 꽤 있기도 합니다.

의료

여기는 아프면 병원이 아니라 약국을 갑니다. 감기 같은 건 시중 약(Dayquil, Nyquil 추천)을 사서 먹으면서 집에서 푹 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가벼운 타박상, 찰과상 혹은 기타 부상 같은 것들은 학교에 있는 medical center 에 예약을 하면 건강보험과 학생신분인 것만으로 무료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부상들은 여기서 처리하기 힘들어 학교병원으로 이송될 것입니다.

은행

미국은행들은 신규 가입자 혜택을 정말 많이 줍니다(특히 학생). 그때 그때 은행마다 진행되는 이벤트가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시고 가장 혜택이 좋아보이는 은행 계좌 개설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된다면 은행계좌 여러 개 개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체이스 계좌 개설해서 100불 정도 받았습니. Bank of America 는페이백 해주고 은행마다 혜택이 다릅니다.

교통

필라델피아의 지하철은 매우 구립니다.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고 지하철이 많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치안도 안 좋습니다. 버스는 조금 탈 만합니다. 밤 시간 대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낮에도 가능하다면 친구와 함께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신

저는 Mint Mobile 을 사용했었는데 신규가입자한테 아주 싼 가격에 6개월짜리 데이터 무제한 플랜을 제공했습니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동아리

유펜에는 학술 동아리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운동 동아리에 집중하느라 학술 동아리를 못 들어갔는데 와튼스쿨에 온 만큼 경영대학 동아리들 중 하나를 체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행

뉴욕은 필라델피아에서 버스로 2시간 거리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있기에 정말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뉴욕은 숙박비가 무지막지하기에 당일치기로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밤에는 시내를 절대 돌아다니지 않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캠퍼스 안은 밤새도록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아다니기에 안전한 편입니다.

6. 기타 유용한 정보

멤버십 결제를 할 때 학생이면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은 6개월 무료체험을 제공해주니 꼭 사용하시고 우버이츠 등과 같은 정기구독 앱들도 웬만하면 학생 할인을 제공하니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정말 꿈같은 3개월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놀아서 배우고 경험한 것이 너무 한 학기였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고민중이시라면 교환학생 정말 추천합니다.